

주제회의
주거권

우리는 도심 속으로 그들을 유배시켰다.

박종민
[조은공감연구소 정책실장]

광주 대인동과 계림동에 비주택인 모텔과 여관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보증금이 없거나 매월 예상되는 주거관리비 5만 원 정도가 부담되어 모텔과 여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다. 가정해체나 사업 실패, 혼자 아픈 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서 이곳 모텔과 여관으로 흘러 들어왔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삶은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 생계지원과 주거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매월 주거관리비가 부담스러워 부엌도 없는 이곳에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주택 거주민들은 00모텔 00호로 호명되면서 장기간(3년 이상)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철저하게 사회적 삶이 없는 상태로 모텔과 여관 00호에 자신의 한 몸으로만 유배되어 있는 현실이다. 주거 공간은 지난한 삶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가득 차 있고 화장실은 간단한 빨래와 수납공간, 몸을 씻는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화재 및 누전 등으로 생활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주방 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용 가스버너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화재 위험이 높고,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일부 모텔은 복도와 계단의 다양한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고, 주거 공간인 각 호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 화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도 비주택 거주민들의 여가 공간, 운동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없고 상가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 인권도시 광주에서 의도하지 않게 도심 속에 가난한 자들의 유배지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다. 이제 인권도시 광주가 가난한 자들의 유배지인 이곳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유배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애하고 환대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비주택 거주자들이 위험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고연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인권적 차원에서 이들의 주거권을 비롯하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원조직을 만들어 비주택 거주민들을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주거 상향 및 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권과 이들의 생존권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존의 복지적 시혜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면서, 그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병들고 나이 들어서는 가난의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애와 연대로 이들에게 진정으로 환대하는 시민사회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권도시 광주이다.